

## 송흙 귀향의 반향과 송순 문학의 기반\*

최재남\*\*

### 차 례

- |                   |                          |
|-------------------|--------------------------|
| I. 서언             | III. 송흙의 훈도와 송순의 태도      |
| II. 송흙의 귀향과 그 반향  | IV. 소결: 송순 문학의 기반과 변모 과정 |
| 1. 목민관으로서의 덕망     |                          |
| 2. 귀향의 실천과 염퇴     |                          |
| 3. 문화공간과 사림의 향촌생활 |                          |

### I. 서언

시가사에서 16세기 전반에서 16세기 후반으로의 전환을 주목하면 이현보(李賢輔, 1469~1555)의 예안 귀향과 분강가단의 활동<sup>1)</sup>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이현보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귀향하여 향촌생활을 실천한 이로 영광의 송흙과 고성 의 어득강을 함께 주목하면 각 지역에서의 편차를 함께 살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본 연구는 2006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1) 최재남, 『이현보 귀향의 시가사적 의의』·『분강가단의 풍류와 후대의 수용』,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보고사, 2003), 101~148쪽.

효성과 청렴으로 당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소탈·담박·염퇴로 고평되면서 진퇴에 여유가 있었던 송흙(宋欽, 1459~1547)의 귀향을 계기로 16세기 중반 이후 호남 사림의 향촌생활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양상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린 시절 송흙의 문하에서 수학한 삼종질 송순(宋純, 1493~1583)의 문학적 기반이 확보되는 과정을 점검하고자 하는 과제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를 주목하면서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이현보 등과 견주어질 수 있으면서도 국문시가를 남기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문학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어득강(魚得江, 1470~1550), 송흙(1459~1547) 등에 대한 검토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문학사에서 언급이 없었던 것도 사실은 주변을 함께 돌아볼 줄 몰랐던 데서 연유한다.<sup>2)</sup>

라고 지적하였고, 실제 이현보 귀향의 시가사적 의의를 다룬 글에서는 이현보·송흙·어득강<sup>3)</sup> 세 사람을 함께 거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중종 35년(1540) 무렵부터 이들 세 사람은 귀향을 했거나 서두르고 있었다. 이들은 조정에서 노성한 신하로 대접받고 있었지만 이 무렵에 모두 조정을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중종 즉위[1506] 이전에 문과를 통해 벼슬에 나아갔고, 몇 번씩 청요직에 참여 하기는 하지만 향촌출신이라는 이유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곧 물러나 지방관으로 밀려났다. 소용돌이의 핵심을 벗어나 주변으로 밀리면서 벼슬살이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서울생활 다시 말해 정치현실의 중심에 놓이지는 못했던 것이다. 기묘사림의 선배들이면서 오히려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졌고, 기묘사림이 향촌교화를 비롯한

2) 최재남,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국학자료원, 1997), 20쪽.

3) 최재남, 『어득강의 삶과 시의 특성에 대한 일고』, 『한국한시연구』 11집(한국한시학회, 2003)

향촌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중심 축에 두지 않았고 또 실제로 이들 향촌출신을 중심으로 한 내용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이들 세 사람의 귀향은 제기된 문제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함께 껴안으면서 실제 자신들의 근거지인 향촌을 중심으로 16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야만 하는 위치에 선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몇 번의 격변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체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물러나고 난 뒤에야 조정에서는 이들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었지만 이미 상황은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sup>4)</sup>

그리고 이어서,

이를 정리하면 염치를 숭상하고, 진퇴에 여유가 있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인데 이것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귀향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밀려난 것이 아니라 비록 연로하다는 이유이기 는 하지만 스스로 택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종 37년(1542)을 전후한 시기 세 사람의 귀향은 세 사람이 지닌 이러한 자세가 향촌사람을 비롯한 향촌사회의 문화를 지키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러한 삶이 향촌문화를 조절하는 기능까지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귀향의 명분이 효의 실천과 닮아 있고 실제 귀향 이후의 활동이 향촌 사족으로서 실천적 자세와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sup>5)</sup>

라고 평가하여, 이들 세 사람의 귀향이 향촌사회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조절하는 데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았다.

이제 이러한 과제를 함께 풀어 나가는 방향에서 중종 36년(1541) 송흙의 귀향이 가지는 의의와 그 반향을 검토하고, 이와 아울러 어린 시절부터 만년까지 송흙을 흠모하면서 그의 삶의 자세를 좇고자 했던 송순의

4) 최재남, 『이현보 귀향의 시가사적 의의』,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보고사, 2003), 118~119쪽.

5) 같은 책, 122~123쪽.

문학적 기반을 설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 II. 송흙의 귀향과 그 반향

송흙(1459~1547)은 본관이 신평(新平), 자는 흙지(欽之)로, 부(父) 가원(可元)이 영광(靈光)의 삼계현(森溪縣)에 세거하면서 영광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다. 22세인 성종 11년(1480)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34세인 성종 23년(1492)에 입자방에 병과 제13인으로 급제하였다.

### 1. 목민관으로서의 덕망

송흙은 내직과 외직의 벼슬을 두루 역임하였지만 스스로 지방관을 바라서 근무한 경우가 많았고 그때마다 백성을 잘 보살피서 덕망이 있었다. 주로 전라도 지역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는데 보성군수(중종 1년 이 전; 48세 이전), 옥천군수(중종 5년; 52세), 여산군수(중종 10년; 57세), 전주부윤(중종 13년; 60세), 광주목사(중종 16년; 63세), 나주목사(중종 19년; 66세), 담양부사(중종 24년; 70세), 장흥부사(중종 27년; 73세), 남원도호부사(중종 27년; 75세), 전라도관찰사(중종 28년; 76세) 등이 그것이다.

목민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을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고 부세를 줄이고 형벌을 삼가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으며, 개인적으로는 청렴하고 부지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몇 기록을 들면,

전라도 관찰사 이사균(李思鈞)이 치계(馳啓)하기를,

“나주목사 송흙은 광주목사로 있을 때부터 부세를 줄이고 형벌을 삼가서 청렴하고 근신한 것이 매우 뚜렷하였으므로 그가 떠난 뒤에도 백

성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중략)…”

하였는데, 송흙에게 향표리(鄉表裏) 1습을 내리고 흥절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다.<sup>6)</sup>

전라도 관찰사 조방언이 치계하기를,

“담양부사 송흙은 청렴하고 부지런하여 백성들을 안집시켰습니다. …(중략)…”

하니, 전교하였다.

“…(중략)… 담양부사에게는 향표리 1벌을 하사하라.”

사신은 논한다. 송흙은 영광 사람이다. 조행이 단아하고 평소에 청백(淸白)을 숭상하여 벼슬한 지가 매우 오래지만, 집에는 한두 섬의 곡식도 없었다. 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수령으로 나가기를 청했을 뿐, 아무리 청현(淸顯)한 관직에 제수되어도 이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효성과 청렴에 감복했다.<sup>7)</sup>

등과 같다.

오랜 기간 지방관으로 재임하면서 한결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본래 지니고 있는 인품과 실제 백성을 위하는 성실한 노력이 지역과 시기에 상관없이 지속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송흙이 목민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박상(朴祥, 1474~1530)이 몇 편의 시를 남겼는데, <奉和欽之詩>(『눌재집』 권2), <題洗心亭>(『눌재집』 권4), <聞欽之先生徵授礪良 索成七字句>(『눌재집』 권5) 등이 그것이다. 앞의 시는 송흙의 7언 고시에 화운한 것이고, 뒤의 두 수는 송흙이 여산군수로 재직하던 시기인 중종 7년(1512)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송흙이 마련한 전별연에서 지은 <題洗心亭><sup>8)</sup>을 보도록 한다.

6) 『중종실록』 권51, 19년 9월 무진, 『국역 중종실록』 26, 127쪽.

7) 『중종실록』 권65, 24년 6월 임신, 『국역 중종실록』 33, 140쪽.

8) 『訥齋集』 권4, <題洗心亭>, 『한국문집총간』 18, 488면, “임신년 봄에 경연에서 진강하라는 명을 받고 광주에서 부모를 뵈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여량(註: 礪山)을 나서는데 고을의 원인 송흙 선생께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전별하였다. 청주판관 유면이 마지막으로 이르자, 이에 운을 찾아 권여섯 자를 얻어서 흙지선생께

산에 가득한 비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데  
 골짜기에 가득한 맑은 구름은 조수처럼 불어나네.  
 배꽃 한 그루는 처마 바깥에 늘어지고  
 버드나무 몇 줄기가 우리 앞까지 뻗었네.  
 손이 대백(大白)을 채우자 비녀장 던지기를 그치고  
 그대는 탐천(貪泉)을 따르며 바가지가 비도록 웃네.  
 한 평생 남국에서 출처를 함께 하는데  
 힘을 합하여 흐린 강물에 아교를 쏟으리.

漫山雨意未全消 滿壑晴雲漲似潮  
 一樹梨花簷外朶 數行楊柳檻前梢  
 客浮大白窮投轄 君酌貪泉笑盡瓢  
 南國百年同出處 濁河齊力瀉阿膠

세심정은 여산에 있는 세심당을 가리킨다. 박상이 경연에서 진강하도  
 록 뿔히어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마음의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세심  
 정에서 여산군수인 송흠이 전별연을 마련하자 회포를 서술한 것이다. 수  
 련과 함련은 주변의 경물을 읊은 것이지만 경련에서는 대백(大白)과 탐  
 천(貪泉)의 고사를 이용하여 길을 만류하는 뜻과 절조를 닦는 것을 견주  
 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같은 남쪽 고을 출신임을 환기하  
 면서 힘을 합하여 흐린 물을 맑게 하는 아교처럼 흐린 세상을 맑게 하자  
 고 다짐하고 있다. 이 시에서 박상은 송흠과 의기를 투합하여 잘못된 세  
 상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셈이다.

23세인 연산군 2년(1496)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8세인 연산군 7년  
 (1501)에 을과 5인으로 급제한 박상은 광산(光山)에 연고를 두고 있었다.  
 일찍이 관각에서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지만, 스스로 지방관을 원하여 한  
 산군수·담양부사·순천부사·상주목사·충주목사·나주목사 등을 역  
 임한 것도 완인(完人)을 지향하는 자세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볼 수

편지로 보낸다.(壬申春 蒙告經幄 覲省光州 還京道出礪良下 主倅宋先生欽 置酒餞  
 行 淸州判官柳君沔末至 仍索韻得五十六字 簡欽之先生)"라는 풀이가 있다.

있다. 이러한 자세가 투영되어서 시에 있어서도 강개의 미학<sup>9)</sup>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포장할 인물<sup>10)</sup>로 거론되기도 하였는데, 두 사람의 이러한 자세가 뒷날 두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 송순의 삶에 일정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귀양의 실천과 염퇴

송흙은 연산조에 저작·박사·수찬·정언 등을 역임하지만 기회만 닿으면 아버이 봉양을 위하여 귀향하기를 간청하였다. 실제 귀양은 잠시 뵈고 오는 것을 포함하여 곁에서 모시는 것까지 말하지만, 귀양의 요청은 연산군 3년(1397) 내직에서부터 중종 29년(1534) 전라도관찰사에서 체직될 때까지 일관되게 계속된다.

정언 송흙이 아버이가 늙었다 하여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니, 가서 뵈고 돌아 오라 특명하였다.<sup>11)</sup>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송흙이 정리가 박절하니 돌아가 봉양하도록 허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송흙이 이 일을 아뢰는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전일에 수찬으로 있을 적에 돌아가 부모 봉양할 것을 애걸하므로 특별히 윤허를 하셨는데, 도승지 권경우(權景祐)가 아뢰기를 ‘쓸모 있는 사람이 모두 병을 핑계하여 사직한다면 국가의 대체상 불가하옵니다.’ 하므로, 이미 윤허하신 명을 환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정언으로 있을 적에 사직서를 올리므로 하교하기를 ‘이는 비록 아버이를 위한 일이지만 쓸모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직서를 내면 국가는 누구와 함께 다스리겠느냐. 근친하고 돌아 오라.’ 해

9) 이종묵, 『해동강서시파연구』(태학사, 1995), 255~283쪽.

10) 『중종실록』 권21, 9년 12월 계사, 『국역 중종실록』 11, 83쪽.

11) 『연산군일기』 권25, 3년 7월 신축, 『국역 연산군일기』 4, 11쪽.

서 금번에 가 보았는데 다시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는 것입니다. 송흠은 과연 어진 자이니 ‘돌아가 봉양하도록 하라.’는 빈 은혜만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성종조에 조위(曹偉)가 응교로 있으면서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니 특히 함양군수(咸陽郡守)를 제수하였으며, 유호인(兪好仁)이 수찬으로 있으면서 역시 돌아가 봉양하기를 애걸하니 특별으로 거창현감(居昌縣監)을 제수했습니다. 그러니 송흠에게도 역시 근읍의 수령을 제수하시면 한갓 백성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때때로 근친할 수 있을 것이오니, 공사가 모두 온전할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수령을 제수한 것은 일시의 특전이니, 단지 돌아가 봉양할 것만 허하라.”

하였다.<sup>12)</sup>

그런데 실제 이러한 귀양을 요청한 이면에는 당시의 권력층과 이후 신진 세력들과 알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장>에서는 권신들의 배척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초반에는 이극돈(李克墩, 1435~1503), 중반에는 심정(沈貞, 1471~1531), 중반에는 진복창(陳復昌, ?~1563)을 지목하고 있다.<sup>13)</sup> 당시 권력층이나 신진 세력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송흠뿐만 아니라 이현보와 어득강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이러한 추정을 반증한다.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대사간 송흠은 80세의 늙은 아버지가 영광에 있는데, 전주 부윤으로 있을 적에도 사직하고 귀양하였습니다. 이제 대사간을 제수하였으니 반드시 직에 나오지 못할 것이며, 혹 직에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오래 못 가서 귀양할 것입니다. 장관을 오래도록 비워 두어서는 안 되니 체직 하소서.”

12) 『연산군일기』 권26, 3년 8월 신묘, 『국역 연산군일기』 4, 159~160쪽.

13) 『知止堂遺稿』 제삼, <知止堂遺事>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송흙은 관직에 있을 때 맑고 근신하여 가는 곳마다 명성이 있었다. 다만 신진 선비들은 스스로 청류(淸類)라 하고, 원래부터 잘 아는 사람이 명달하여 쓸 만한 사람이라도 용류(庸類)라 하며, 자기들에게 붙는 사람이면 칭찬하고 추천하여, 대간과 시종이 다 그들에게서 나왔으므로 추종하는 자가 많았다. 송흙은 여러 차례 수령이 되어 오래 외방에 있었고, 또 연로하여 신진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허여하지 않은 것이다. 간원이 흙을 논하려 해도 혈뜬을 말이지 없으므로 곧 외방에 있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핑계하고 체직하기를 청하니, 그 뜻은 실로 논박한 것이다.<sup>14)</sup>

중종 29년(1534)에 전라도관찰사로 있으면서 체직을 바라는 서장을 올려 윤희를 받은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백세에 이른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다가 중종 31년(1536)에 내간상을 당하여 정성껏 장례를 치렀으며, 기복하여 중종 33년(1538) 3월에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었으나 9월에 사직하는 소를 올렸다. 고향인 영광에서 지내던 중 중종 36년(1541)에 의정부 좌참찬에 제수되자 영광에서 서울을 왕래하면서 사직서를 올리고 윤희를 받은 뒤에 영원히 귀향하게 된다.

이 과정은 <기행록><sup>15)</sup>으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영광에서 서울을 오르내리는 여정과 그 여정에서 각 고을 수령의 대접을 확인할 수 있고, 대궐에 나가서 사은하고 사직하는 과정과 고향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송흙을 전별하는 한강의 전별연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상행은 정월 스무날에 출발하여 장성→정읍→태인→금구→삼례→익산→여산→은진→이산→공주→전의→천안→직산→진위→용인을 거쳐 이월 초하룻날에 서울에 들어간다. 서울에서 대궐에 나가 사은하고 사직한 뒤에, 사월 열하룻날에 출발하여 귀향하는데 이날 한강변에서 성대한 전별연이 벌어진다.

14) 『중종실록』 권34, 13년 7월 신유, 『국역 중종실록』 17, 190쪽.

15) 『知止堂遺稿』 제이, <記行錄>

각 관아에서 따로 전별연을 마련하여 술잔을 권하는데, 성균관에서 마련한 자리에는 김안국(金安國)·권벌(權穰)·유인숙(柳仁淑)·허자(許磁)·장적(張籍)·홍덕인(洪德寅) 등이 참석하고, 이어서 이조에서 마련한 자리와 양호(兩湖)의 조사(朝士)들이 마련한 모임이 있었고, 배 위에서는 사인사(舍人司)에서 준비한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송인수(宋麟壽)·김로(金魯)·나숙(羅淑)·조계상(曹繼商)·권응정(權應挺) 등이 참석하였으며, 그리고 가까운 배에서는 조사들이 모였는데 정만중(鄭萬鍾)·조희(曹禧)·송세형(宋世珩)·윤구(尹衢)·이문건(李文健) 등이 자리에 있었으며, 고별한 뒤에 사평(沙平)에 이르자 춘양령(春陽令)·이영상(李永祥)·김서운(金瑞雲) 등이 전별하였다.<sup>16)</sup>

하행은 서울 → 과천 → 수원 → 진위 → 직산 → 전의 → 공주 → 이산 → 은진 → d용안 → 함열 → 임피 → 신창진 → 만경 → 부안 → 홍덕 → 고창 → 무장 → 이암산 → 선방산 → 관수정 → 집으로 되어 있다. 귀향하는 노정에 공주의 금강에서 충청감사 권응창(權應昌)이 도사 백인현(白仁賢)을 통하여 특별히 마련한 금강영위연(錦江迎慰宴)은 매우 인상적인데, 작은 배를 이어서 장막을 설치하고 배 위에 술자리를 마련하여 못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기녀들이 꽃을 꽂고 춤을 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행록>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임금을 하직하는 부분을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참찬 송흙이 아뢰기를,

---

16) 漢江에서의 이러한 전별연은 지방관으로 떠나거나 귀향하는 관리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보인다. 이현보도 중종 37년(1542) 7월 제전정에서 여러 분들과 전별하면서 <濟川亭次餞別諸公 到楮子島>라는 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龔巖年譜』에는 濟川亭에서 愼居寬·尹任·鄭士龍·尹思翼·尹漑·李希輔·尹溪·尹汝弼·柳灌·權穰·李彥迪·柳仁淑·李芑·李霖·鄭順朋·洪景霖 등이 참석하고 豆毛浦에서는 鄭世虎·權應挺·金光準등이 참석하였으며 贈行詩를 남긴 사람으로 金安國·曹繼商·成世昌·宋麟壽·張籍·趙士秀·李滉 등을 들었다.

“(상략)…”

신은 본래 재주와 덕망이 없는데도 성명한 조정을 만나 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지위가 정2품에 이르렀으니, 미천한 신분으로는 극도에 이른 것입니다. 비록 아주 늙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만두어야 할 나이입니다. 더구나 나이 여든이 넘었는데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탐욕에 연연하여 머물러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니, 그것도 시종 잘 보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빨리 신의 직을 해임하도록 명하시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죽어가는 남은 연령을 보전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의 깨끗한 덕행과 나이를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본직에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제 사직하는 내용을 보니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마지못하여 그것을 따른다. 경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니, 근간에 비록 시사를 정지하였으나 마땅히 만나보아야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송흠에게 빈청에서 술을 내려주고 머물러 있게 하라.”

하였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송흠을 인견하고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이르기를,

“조정에는 모름지기 노성한 사람을 기용한 뒤에야 사람을 기용하는 도리가 정당해지며, 깨끗한 덕행을 숭상한 뒤에야 청렴한 풍습이 크게 행하여진다. 경은 노성한 사람이고 또 깨끗한 덕행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에 기용하였는데, 지금 사직하는 뜻을 보니 간절하기 때문에 마지못하여 그것을 따른다.”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송흠을 특별히 명하여 정부의 관원으로 삼은 것은 그의 깨끗한 절개를 귀하게 여긴 것이다. 사직을 청하는 정상이 간절하기 때문에 마지못하여 따르니, 그 도의 감사에게 하서하여 음식물과 쌀·콩 40석씩을 주도록 하라.”

…(중략)…”

사신은 논한다. 송흠은 나이 83세인데도 기력이 오히려 건장하여 조정의 반열에서 활동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었는데 스스로 물러나 여생을 마칠 뜻을 두었다. 특별히 불러 조정에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굳이 사직하였으니, 거기에는 틀림없이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에 있는

지 두어 달 사이에 조정의 일이 이미 힘 쓸 수 없는 데 이르렀고 예의 엄치가 쓸어버린 듯 땅에 떨어져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았으니, 송흠이 그 대열에서 추창하며 따르려고 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다만 인견할 때 어찌 곧고 간절한 말 한마디라도 하여 떠난 뒤의 간언으로 남겨둬으로써, 신하가 임금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뜻을 다하지 않았던가. 임금의 말이 두 번 이르고 사관이 또 말을 전했는데도, 끝내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이것이 한스럽다. 어떤 이는 하사한 술을 전부 마시고 혼미하게 취하여 그렇게 되었다고도 한다.

사신은 논한다. 송흠의 성품은 본래 청백한데 학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하직하는 즈음에 경계가 되는 유익한 말을 아뢰어 임금의 잘못된 점을 보충하지 않았으니 애석하다.<sup>17)</sup>

이어지는 사신의 평은 송흠 개인의 입장도 배려하면서 나라의 입장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전 우참찬 송흠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하고 고향으로 아주 돌아갔다.

사신은 논한다. 송흠은 사람됨이 청렴하고 간명하며, 부모를 위하여 여러 번 남방 고을의 수령을 자청해 나갔는데, 정사에 자상하였다. 만년에는 전라 감사가 되었다가 청렴한 덕행으로 참찬에 올랐으며, 이때에 이르러 사직하니, 나이가 여든 넷이었다. 조정에 선 50년 동안에 끝내 몸만을 보전하여, 그때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으니, 취할 만한 점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공명을 세우는 데 있어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드문데, 송흠은 홀로 진퇴에 여유가 있었으므로 조야가 모두 그를 어질게 여겼다.<sup>18)</sup>

### 3. 향촌의 문화공간과 사림의 문화조절

중종 36년(1541)에 영광으로 귀향하게 된 송흠은 명종 2년(1547) 89세

17) 『중종실록』 권94, 36년 3월 임인, 『국역 중종실록』 47, 279~281쪽.

18) 『중종실록』 권95, 36년 4월 정묘, 『국역 중종실록』 48, 34쪽.

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6~7년간 평생 지향해 온 지절을 지키면서 당·정을 중심으로 한 향촌의 문화공간<sup>19)</sup>에서 지내게 된다. 송흙의 이러한 생활은 16세기 후반 호남 사림의 향촌생활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 조정의 후대와 향촌 사회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송흙의 향촌생활은 스스로 관수정(觀水亭) 영건을 통하여 내면의 마음을 닦는 일이 한 축이고, 중종 38년(1543)에 전라도관찰사 송인수(宋麟壽, 1499~1547)가 마련한 기영정(耆英亭) 잔치를 통하여 양로회의 전통을 확산시켜서 향촌 사회의 문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송흙이 영건한 관수정은 직접 쓴 <관수정기>와 시가 있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평생에 본 정자는 많다. 땅의 형세가 높고 시원한데다 산과 물이 둘러싸고 있어서 먼 곳까지 볼 수 있고 마음과 눈을 상쾌하게 하는 것도 있었으나, 깊은 산과 막힌 골짜기 속에 시냇물이 굽어 꺾이면서 물이 깊게 괴어 연이어 끊어지지 않아 장강과 한수와 같이 깊고 넓은 것은 결코 없었다. 내가 지금 다행스럽게 얻었으니 어찌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었다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에 냇가에 몇 간의 정자를 세웠는데 대개 물이 가까운 곳에 의지하고 보고 즐기기에 편하기 때문이다. 내가 천심을 살피건대 달빛이 다다르면 금벽이 물위에 잠기었다가 뜨고, 바람이 불면 비단이 펼쳐지고 주름이 생기며, 얽은 비가 잠깐 개면 짙은 빛과 얽은 빛이 서로 비추며, 바람이 고요하고 물결이 조용하면 잠긴 물고기를 셀 수 있다. 아침 햇살과 저녁 그늘에 이르러 기이한 모양과 일만 형상이 모두 정자의 빼어난 경계이다. 그러나 바깥이어서, 그 물결을 보고 물에 근본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맑음을 보고 그 마음의 사악함을 씻은 뒤에야 물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자손들은 힘 쓸지어다.(余平生所觀亭榭多矣 地勢高爽 山水環拱 可以遠覽 快心目者 則有之矣 若深山窮谷之中 溪流曲折 至林麓斷處 滄泓演迤 如江漢之深廣

19) 최재남, 『향촌 문화공간의 미학과 시가문학』,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보고사, 2003), 203~213쪽 참조

者 則絕無焉 余今幸得之 豈非天慳地秘 而後顯耶 於是 構數間亭于川上 盖取其近水 而便於觀翫也 余觀夫天心 月到 則金壁沉浮水面 風來 則羅縠生紋 薄雨乍晴 濃淡交映 風恬浪靜 則潛鱗可數 而至於朝暉夕陰 奇態萬狀 此皆亭之勝槩也 然外也 觀其瀾 而知其水之有本 觀其清 而洗其心之邪穢 然後 可謂之觀水也 吾子孫勉之哉<sup>20)</sup>

외형상 빼어난 경계를 자랑하는 곳이지만 물결을 통하여 물에 근본이 있음을 알고, 맑음을 통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수정에서 물을 보는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산군수로 재임할 때 박상을 전별하던 세심정이 지닌 뜻을 환기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박상은 흐린 세상을 맑게 하자고 했는데, 관수정에서 송흠은 자신의 내면을 맑게 하면서 후손들을 면려하는 뜻도 포함시키고 있다.

7언 율시로 된 <관수정>은 다음과 같다.

물에 닿은 높은 건물이 여름에도 차가운데  
 늙은이가 난간에 기대지 않는 날이 없네.  
 이미 골짜기 입구의 두 줄기 물을 독차지하는데  
 어찌 용문의 여덟 가닥 여울<sup>21)</sup>을 부러워하랴?  
 고요한 그림자와 잠긴 빛은 참으로 즐길 만하고  
 갠 뒤의 단장과 비가 쓸고 간 모습은 가장 볼 만하네.  
 즈른 맵시와 골 모양이 모두 눈을 어지럽히는데  
 맑은 물결을 취하여 나의 마음을 씻기를 바라네.  
 危構臨流夏亦寒 老夫無日不憑欄  
 既專谷口雙溪水 奚羨龍門八節灘  
 靜影沉光眞可樂 晴粧雨抹最堪觀  
 千姿萬態渾迷眼 要取清瀾洗我肝<sup>22)</sup>

20) 『知止堂遺稿』 제이, <觀水亭記>

21) 八節灘은 河南省 洛陽市 부근에 있는 매우 험난한 여울이다.

22) 『知止堂遺稿』 제이, <觀水亭>

수·함·경련에서는 주변 경개와 견준 정자의 위치와 모습을 말하고 있고, 미련에서는 <관수정기>에서 관수의 핵심을 지적한 것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씻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 시에서 송흙은 관수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닦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놀이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자에서 자신의 내면을 수습하고자 하는 인식은 뒷날 송순이 면양정에서 지향한 바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향촌의 문화공간으로서 관수정은 세운 시기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중종 36년(1541)에 고향으로 영원히 돌아가기 전에 세운 것이라는 점은 앞의 <기행록>에서 이미 관수정을 경유하고 있어서 검증이 되지만, 송환기(宋煥箕, 1728~1807)의 <관수정중건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추정하도록 한다.

우선 이선(李選, 1632~1692)이 쓴 <지지당행장>에는 중종 35년(1540)에 정자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경자년(중종 35, 1540)에 선방산 아래의 용암천 위에 정자를 세워서 관수라 이름하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노닐며 쉬는 장소로 삼았다. 한 때의 문장가와 이름난 재상 성돈재(성세창)·신낙촌(신광한) 등 여러 분이 읊은 시편이 많다.(庚子 築亭於缸防山下龍巖川上 名曰觀水 以爲往來棲遲之所 一時文章名卿 成遜齋, 申駱村諸公 多有篇什以詠之)<sup>23)</sup>

그리고 윤증(尹拯, 1629~1714)이 쓴 송흙의 <신도비명>에서는,

일찍이 물가에 정자를 지었는데 관수라 편액하고 스스로 시를 짓고 아울러 서를 두어 우의를 삼았다. 이어서 화운한 사람은 퇴휴 소세양·모재 김안국·석천 임억령·휴수 이문건·규암 등인데 잇달아 거편이 만들어지니 옥처럼 빛나서 완상할 만하였다.(嘗亭臨溪 扁曰觀水 自爲詩

23) 『芝湖集』 권12, <知止堂宋公行狀>, 『한국문집총간』 143, 557~560쪽.

并序 以寓意 屬而和者 如蘇退休世讓金慕齋安國林石川億齡李休叟文樾及  
圭庵公 聯爲鉅編 炳琅可玩<sup>24)</sup>

라고 하여 구체적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지당유고』에는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이 중종 34년(1539)에 쓴 <병서>와 차운시를 비롯하여 홍언필(洪彦弼)·유보(柳溥)·김안국(金安國)·성세창(成世昌)·신광한(申光漢)·김인후(金麟厚)·임억령(林億齡)·이문건(李文健)·박우(朴祐)·나세찬(羅世纘)·양팽손(梁彭孫)·안처함(安處誠)·송순(宋純)·정사룡(鄭士龍)·오겸(吳謙)·강종수(姜終壽)·정희홍(鄭希弘)·김익수(金益修)·노극창(盧克昌)·유사(柳泗)·정순봉(鄭順朋)의 차운시가 있으며, 둘째아들 익경(益憬)의 시도 남아 있다. 소세양의 <병서>에 따르면 낙안현감이었던 아들 익경이 송흙의 시를 보이면서 화운을 청하여 짓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연대를 가정 18년(중종 34년, 1539)으로 적고 있다. 이로 보면 1539년 이전에 관수정이 세워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런데 송흙의 문하인 양팽손(梁彭孫, 1488~1545)의 연보에는,

가정 6년 정해(1527) 선생 40세라. 지지당 송선생의 <관수정>에 차운  
하다.(嘉靖六年 丁亥 先生四十歲 次知止堂宋先生觀水亭韻<sup>25)</sup>)

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미 중종 22년(1527)에 관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하면 정확한 연대는 확인할 수 없어도 중종 35년(1540) 이전의 어느 시점에 관수정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4) 『明齋先生遺稿』 卷之四十一, <判中樞府事宋公神道碑銘>, 『한국문집총간』 136, 357~358쪽.

25) 『學圃先生文集』 卷之四, 附錄 <年譜>, 『한국문집총간』 21, 193쪽.



관수정과 함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기영정에서 마련한 잔치이다.

중종 38년(1543) 초가을에 전라도관찰사 송인수가 마련한 기영정 잔치를 통하여 양로연의 전통을 확산시켜서 향촌 사회의 문화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맡은 것을 알 수 있다. 청렴과 염퇴를 실천한 노성한 신하에 대한 조정의 대접과 이를 목격한 각 지역의 수령과 백성들이 스스로 삶의 태도를 정하는 참조의 틀로 삼을 기회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전통은 이현보<sup>26)</sup>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향촌사회의 문화조절에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양로연은 고을의 수령이 나이가 많은 일반 백성을 모셔서 베푸는 잔치인데, 기영정 잔치는 임금의 특명으로 관찰사가 퇴임 관료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비록 이 잔치가 퇴임 관료인 송흙을 위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송흙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할 때, 이 잔치에 함께 자리했던 주변 지역의 수령과 백성들은 이 잔치를 되새기면서 향촌문화의 방향을 조절하는 참조의 틀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기영정에서 마련한 잔치의 내용은 송흙이 쓴 <기영정연시기><sup>27)</sup>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송흙이 85세이던 중종 38년(1543) 7월 초이렛날에 송정대부에 오르고 스무엿새날에 관중추에 배수되었는데, 2월에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된 송인수가 잔치자리를 마련하여 축하하려고 나주목사 조희(曹禧)와 영광군수에게 삼계현에 잔치를 베풀 장소를 찾았으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송흙의 관수정이 있는 남쪽 가에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새로운 정자를 마련하고 기영정이라 이름한 것이다.

26) 안동부사로 부임한 이현보가 중종 14년(1519) 고을의 父老를 맞이하여 베푼 花山養老宴을 들 수 있으며, <花山養老宴詩>를 짓고 박상·권벌·김영·조신·황효현·정사룡·이행·소세양·어득강·이희보·김안국·이태·이장곤·장육 등이 차운했다. 그리고 이 내용이 <花山養老宴圖>로 남아 있다.

27) 『知止堂遺稿』 제이, <耆英亭宴時記>

칠월 스무이렛날에 감사가 관수정에 이르고, 다음 날인 스무여드렛날에 새 정자에서 연례를 베풀었는데, 가까운 고을의 수령들이 10여명 참석하고 나주목사 조희가 연례를 관장하였다.

연례는 음례(飲禮)와 연석(宴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음례는 수작음양(酬酌揖讓) → 전배진찬(傳杯進饌) → 주악(奏樂)의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정자를 둘러서 구경하는 사람이 몇 천명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음례가 끝난 뒤에 감사가 다시 마련한 연석은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뭇 음악이 차례로 연주되었는데, 먼저 정업곡(定業曲)<sup>28)</sup>을 연주하고 향악으로 처용무(處容舞)<sup>29)</sup>, 관음찬(觀音贊)<sup>30)</sup>, 포구기(抛球伎)<sup>31)</sup>, 발도가(發棹歌)<sup>32)</sup> 등이 연주되었다.

송인수가 지은 <제지지방송공흠기영정>은 다음과 같다.

호해에서 신령으로 받든은 우리 후가 있는데  
한 평생 얼음과 빙벽나무처럼 괴롭게 맑게 닦았네.  
고르게 겹쳐진 임금님의 은혜가 잇달아 상으로 기리고  
순수하고 깊은 효성스런 마음으로 자주 고을을 빌었네.  
시령에는 이삼천 권의 책을 꽂히고  
나이는 여든 여섯의 춘추로 많으시네.  
기영정 위에서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니  
그림으로 옮겨서 만세토록 남기리.  
湖海維靈有我侯 一生冰蘖苦清修  
主恩稠疊連褒賞 孝意純深數乞州  
架插二三千卷帙 年高八十六春秋  
耆英亭上成佳會 移入丹青萬世留<sup>33)</sup>

28) 定業曲은 定大業을 가리키는데 종묘제례의 亞獻과 終獻에 연주하는 樂舞이다.

29) 處容舞는 朶才 때나 驅離의 뒤에 처용의 탈을 쓰고 추는 춤이다.

30) 觀音贊은 작자·연대 미상의 고려시대 佛歌의 하나이다.

31) 抛毬樂은 朶才 때에 공을 가지고 추는 궁중 춤의 한 가지이다.

32) 發棹歌는 배가 출발할 때 부르는 노래인 뱃노래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송흠은 다음과 같이 화운하면서 기영정의 잔치를 마련한 관찰사에게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다.

천고에 호남에서 몇 사람의 후를 고르는가?  
 상공의 다스림과 교화는 자신이 닦은 것이네.  
 한결 같은 마음에 어찌 두셋의 덕이 있으랴?  
 온통 무너진 쉼 고을을 다 일으켰네.  
 판 날에 오늘의 모임을 잊기 어려울 터인데  
 다른 해에는 이 해의 가을을 상상할 수 있으리.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슬프게 하는가?  
 등공(鄧公)을 만류하지 못함이 가장 안타깝네.  
 千古湖南闕幾侯 相公治化自身修  
 一心寧有三德 百廢俱興五十州  
 異日難忘今日會 他年可想是年秋  
 箇中何事堪悵悵 最恨鄧公挽不留

기영정에서의 잔치를 기쁘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관찰사를 한나라의 등선(鄧先)에 견주고 있어서 배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고 있다. 향촌사회에서 어른에 대한 이러한 대접은 향촌사회를 이끌어 가는 생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고, 조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 시도했던 개혁을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이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영정의 잔치에 대하여 실록에서는 이듬해 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전라도 관찰사 송인수가 영광군에 순찰 나가, 판중추(判中樞) 송흠을 위해 기영정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사신은 논한다. 송흠은 이 고을 사람이고 정자는 곧 송인수가 조정에서 숭상하고 장려하는 뜻을 이어받아 세운 것인데, 이때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어 영광스럽게 해 준 것이다. 송흠은 청결한 지조를 스스로 지키

33) 『圭菴先生文集』 卷之一, <題知止堂宋公耆英亭>, 『한국문집총간』 24, 17쪽.

면서 영달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걸군하여 10여 고을의 원을 지냈고 벼슬이 또한 높았었지만, 일찍이 살림살이를 경영하지 않아 가족들이 먹을 식량이 자주 떨어졌었다.

육경에서 은퇴하여 늙어간 사람으로는 근고에 오직 이 한 사람뿐이었는데, 시냇가에 정자를 지어 관수정(觀水亭)이란 편액을 걸고 날마다 한 가로이 만족하게 지내기를 일삼았으므로 먼 데서나 가까운 데서나 존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젊은 시절부터 집에 있을 적이면 종일토록 의관을 반듯하게 하고 조금도 몸을 기울이지 않고서 오직 서책만을 대하였고, 고을 안의 후진을 접할 때에는 비록 나이가 젊은 사람이더라도 반드시 당(堂)에서 내려가 예절을 다했었다. 그의 어머니도 가법이 또한 엄격하여 감히 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고 나이가 1백 살이었다. 송흙 또한 90이 가까운데도 기력이 오히려 정정하였다. 특별히 조정에서 송품(崇品)을 총애하는 은전을 입게 되었으므로 논하는 사람들이 인자한 덕의 효과라고 했었다.

도내에서 재상이 된 사람 중에 소탈하고 담박한 사람으로는 송흙을 제일로 쳤고, 박수량(朴守良)을 그 다음으로 친다고 하였다.<sup>34)</sup>

관찰사를 직접 보내어 기영정을 짓고 잔치를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조정에서는 후대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송흙이 죽은 뒤에도 나라에서 제대로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 동안 신진들을 등용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정유(鄭裕)가 아뢰었다.

“『서경』에 이르기를 ‘늙은이를 버리지 말라.’ 했고, 또 ‘노성인(老成人)을 버리지 말라.’ 했는데, 노성한 사람은 치도에 관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 동지 이현보는 나이가 90에 가까워 벼슬을 사퇴하고 고향에 가 살고 있는데, 근자에 재변으로 인하여 구언(求言)하였으나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으니 어찌 뜻이 없어 그리했겠습니까. 옛날에도 늙어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이에게 말을 구한 적이 있었으니, 상께서 성의를 다하여

34) 『중종실록』 권102, 39년 3월 경신, 『국역 중종실록』 51, 228~229쪽.

하유해서 올라오도록 하소서. 만일 올 수가 없다면 진언(陳言)하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송흙이 시골에 살다가 늙어 죽은 것이 지금까지도 애석합니다.”<sup>35)</sup>

기묘사화를 겪으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심정·김안로 등이 몰려난 뒤에 내몰았던 사람을 재등용하게 되고, 한편으로 노성한 선비들을 소홀하게 대접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송흙·이현보·어득강 등에 대한 조정의 관심 표명은 이들이 각각 영광·예안·고성에서 향촌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의 정치적 경륜과 효성과 청렴으로 요약되는 실천적 삶을 바탕으로 새로운 향촌문화를 열어가게 되는 다음 시기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Ⅲ. 송흙의 훈도와 송순의 태도

효성과 청렴으로 칭송을 받고 귀향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예우를 받은 송흙은 송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물이다. 같은 집안이라는 연고도 있고 송순이 어린 시절 송흙에게 직접 훈도를 받기도 하였다.

송순은 송흙의 삼종질(三從姪)이다. 송순의 고조부 희경(希璟)과 송흙의 증조부 귀(龜)는 형제간으로, 송희경이 태종 4년(1404)에 담양으로 귀양을 간 적이 있는데, 함양군수 등을 역임하고 난 뒤 만년에 담양으로 퇴로한 것으로 보인다.

안등(安騰)을 상주로, 김음(金愔)을 창평으로, 송희경을 담양으로, 유장(柳璋)을 청주로 귀양보내었다.<sup>36)</sup>

35) 『명종실록』 권16, 9년 1월 무오, 『국역 명종실록』 8, 119쪽.

36) 『태종실록』 권7, 4년 6월 정유, 『국역 태종실록』 2, 55쪽.

『지지당유고』와 『면앙집』 등의 기록을 통해 송순이 어린 시절부터 삼중숙 송흠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평생 동안 마음 속으로 삶의 태도를 배우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기축년 가정 8년 중종 24년(1529), 선생 37세라.

10월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뵈다.

이 때에 단문숙 지지당 송흠 공이 본 고을에 부임하다. 화목과 우애가 서로 절실하였는데, 공은 일찍이 양팽손 교리와 함께 그 문하에서 공부하여 이에 이르러 더욱 돈독하였다.(己丑 嘉靖八年 中宗 二十四年 先生 三十七歲 十月 歸觀 是時 袒免叔 知止堂宋公欽涖本府 睦愛相切 公早與梁校理彭孫遊其門 至是尤篤)<sup>37)</sup>

어린 시절부터 능성(綾城) 출신인 양팽손 등과 함께 송흠의 문하에 나아갔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연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양팽손의 문집인 『학포집』의 기록을 참고하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양팽손의 현손 양세남(梁世南)이 쓴 <가장>에는 연산군 6년(1500) 양팽손의 나이 13세에 송흠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고 적고 있다.

열세 살에 지지당 송흠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 잘못된 학식을 바로잡다. 이에 앞서 송공이 한 필의 말로 찾아와서 한 번 봄에 이미 옛날부터 알고 지낸 사이와 같이, 며칠을 머무르며 성리의 학문을 따졌는데 흐르는 물과 같이 통하여 풀리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탄복하여, ‘우리나라에서 도를 전하는 책임이 참으로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였다.(十三 就正于知止堂宋先生欽門 先是宋公匹馬來訪 一見已如舊識 因留數日 論性理之學 無不通解如流 乃歎曰 吾東傳道之責 寔在斯人 待之如高弟 及歸 見主守謂曰 古所謂子國有顏子者 正合於今日子邑之有梁秀才某 自此因從學於宋公 與羅松齋世績 宋侁仰純 道義相交 居常以小學律身 精密篤實 德器漸成 接其辭氣 可知其成德君子<sup>38)</sup>

37) 『侁仰集』 권5, <年譜>, 『한국문집총간』 26, 275쪽.

한편 <연보>에서는 이보다 3년 뒤인 연산군 9년(1503) 양팽손의 나이 16세에 송흙의 문하에 나아가 배웠다고 적고 있다.

홍치 15년 임술, 선생 15세라. 지지당 송흙 선생이 들렀는데, 송선생이 선생의 이름을 듣고 와서 경사를 강론하고 탄복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도를 전하는 책임이 참으로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고, 고을 수령에게 가서 말하기를, ‘옛 사람이 공자가 나라에 안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나에게게는 양수재가 있다고 또한 일렀다.

홍치 16년 계해, 선생 16세라. 지지당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서 배우다. 스승의 문하에서는 밤낮으로 배운 것을 질의하고, 물러나서는 송재나세찬·면양 송순 등 여러 분과 강론하다.(弘治十五年壬戌 先生十五歲 知止堂宋先生欽見過 宋先生聞先生名 來與論經史 歎曰 吾東傳道之責 寔在斯人 及歸語主倅曰 古人謂子國有顏子 吾於梁秀才 亦云 弘治十六年癸亥 先生十六歲 從學知止堂先生門 在師門 日夕質所學 退與羅松齋世繼宋 俛仰純 諸公講論)<sup>39)</sup>

<가장>과 <연보> 사이에 약간의 착종이 있다. 연산군 6년(1500) 양팽손이 13세쯤이라면 송순은 8세쯤이고, 연산군 9년(1503) 양팽손이 16세쯤이라면 송순은 11세쯤이다. 연산군 6년이면 송흙이 귀양을 청하여 고향인 영광에서 지내던 때이고, 연산군 9년경이면 외간상을 당하여 고향에서 거상하던 기간이다.

이제 몇 가지 기록을 종합하면 송순은 10세 무렵에 삼중숙인 송흙의 문하에 나아가 훈도를 받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송흙의 문집인 『지지당유고』에는 문인으로 송순·양팽손·안처함(安處誠)·김맹석(金孟碩)·송석현(宋錫賢)<sup>40)</sup> 등 다섯 사람이 올라 있다.

다음은 중종 16년(1521)에 광주목사로 부임하는 송흙을 송별하면서

38) 『學圃先生文集』 卷之三, 附錄 家狀, 『한국문집총간』 21, 177쪽.

39) 『學圃先生文集』 卷之四, 附錄 年譜, 『한국문집총간』 21, 185쪽.

40) 『知止堂遺稿』 제사 별록, <孝憲公門人緣>

지은 <奉別宗丈令公欽赴光州>이다.

당시에는 봉양하면서 시험삼아 고을을 다스렸는데  
남은 삶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네.  
익숙하게 한적한 거처에서 일찍이 취미가 되었는데  
잠시 인간세상을 좇아 억지로 머리를 숙이네.  
집안을 이어서 명성이 높음을 이미 기뻐하고  
장수를 누리며 기력이 쇠스름을 자랑할 만하네.  
소자가 수레를 따르며 서로 증별하는 뜻은  
한 몸을 금 주발을 지키듯이 진귀하게 보중하시라는 것이네.  
當年奉養試爲州 不是餘生謝故丘  
慣向幽居曾着趣 暫從人世強低頭  
承家已喜名聲遠 享壽堪誇氣力適  
小子追車相別意 一身珍重保金甌<sup>41)</sup>

이후 송순은 담양부사로 부임한 송흠을 고향에서 맞아 돈독한 화목을 확인하기도 한다.

다음은 송흠의 <관수정>에 차운한 <차송사재관수정운>을 보도록 한다.

영롱한 누각이 맑고 찬 물을 내려보는데  
흘로 난간에 기대어 늘 맑고 깨끗한 물을 어여삐 여기네.  
가을을 적시고 거울을 씻으며 평편한 물가를 열고  
눈을 뿜으며 우레가 그치자 빠른 여울로 내려가네.  
회고 깨끗한 이 마음이 일찍이 서로 맞았는데  
물의 원류 한 갈래가 또한 불 만하네.  
한 평생 서로 기쁨이 이와 같음을 아나니  
뛰어난 얼음과 옥이 폐와 간을 비추네.  
畫閣玲瓏俯碧寒 每憐淨澄獨憑欄  
涵秋洗鏡開平浦 噴雪晴雷下急灘

41) 『俛仰集』 권1, 『한국문집총간』 26, 185쪽.



皎潔此心曾合契 淵源一派也宜觀  
 百年交養知如許 冰玉崢嶸照肺肝<sup>42)</sup>

경련과 미련에서 송흠의 인품에 건주어 관수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 경련에서 회고 깨끗한 송흠의 마음과 물의 본질을 연결시키고 있고, 미련에서는 병옥과 같은 인품이 속마음을 비추고 있다고 송흠을 칭송하고 있다. 평생 살아온 삶이 관수에 어우러지면서 만년의 빛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관수정>에 차운한 이 시는 홍문관 응교 때에 지은 것이라 밝혔는데, 실제 송순은 중종 32년(1537)에 홍문관 부응교에 배수되었다가, 이듬해인 중종 33년(1538)에 홍문관 직제학으로 승차되면서 아울러 예문관 응교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사실은 홍문관 부응교를 맡았던 중종 32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앞에서 송흠의 관수정 건립 연대를 확정짓지 못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송흠은 <次宋掌令純別章><sup>43)</sup>을 지어서 송순의 시에 차운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송순의 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송흠과 관련되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계사년, 가정 12년 중종 28년(1533), 선생 41세라.

9월에 지지당이 전라도관찰사에 배수되다.(癸巳 嘉靖十二年 中宗 二十八年 先生 四十一歲  
 九月 知止堂拜全羅道觀察使)

신축년, 가정 20년 중종 36년(1541), 선생 49세라.

이 해에 지지당 송공이 특별히 좌참찬에 제수되었는데 은혜에 사례하고 체직을 빌어서 윤희를 받고 4월에 남쪽으로 돌아가는데 온 조정에서

42) 『俛仰集』 권1, 『한국문집총간』 26, 198쪽.

43) 『俛仰集』 권4, 『한국문집총간』 26, 243쪽.

동대문 밖 한강 가에서 전별하다.(辛丑 嘉靖二十年 中宗 三十六年 先生 四十九歲 是年 知止堂宋公特授左參贊 謝恩乞遞 蒙允 四月 南歸 傾朝餞 別于東大門外漢江上)

정미년 가정 26년 명종 2년(1547), 선생 55세라.

9월에...(중략)... 이에 앞서 선친의 옛 터에 나아가 효은당을 새로 짓고, 이에 이르러 지지당 송공에게 기문을 부탁하고, 청송당 성공이 편액을 짓다. 12월에 지지당 송공의 상에 곡하다.(丁未 嘉靖二十六年 明宗 二年 先生 五十五歲 九月... 先是 就先考舊基孝恩堂重創之 至是請知止堂宋公記之 聽松成公題其扁 十二月 哭知止堂宋公喪)

이상 연보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송순은 늘 가까운 곳에서 송흠을 모신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흠모하면서 발자취를 뒤따르고 어려운 일을 상의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송순에게 있어서 송흠의 삶이 보여 준 실천적 태도는 평생을 두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면앙(俛仰)의 내면화가 이러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자신의 삶을 추스르는 나침반으로 삼종숙이자 스승인 송흠의 청렴과 효성을 되새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이선은 <지지당송공행장><sup>44)</sup>에서 효자염리(孝子廉吏)이면서 청명기덕(清明耆德)으로 사림에 우뚝한 사람으로 조원기(趙元紀, 1457~1533), 이현보, 송흠, 송순 네 사람을 들기도 하였다.

#### IV. 소결; 송순 문학의 기반과 변모 과정

송흠에 대한 송순의 태도는 평생을 두고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44) 『芝湖集』 권12, <知止堂宋公行狀>, 『한국문집총간』 143, 559~560쪽.

있는데, 성장과 벼슬살이를 통하여 새로운 상황에 접하고 여러 인물을 만나면서 송순 문학의 기반은 크게 확충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송흠을 만난 시기를 제1기로 본다면, 그 이후의 시기도 크게 세 시기로 가를 수 있을 것이다.

21세인 중종 8년(1513)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7세인 중종 14년(1519)에 별시에 급제할 때까지 송순은 새로운 스승 늙재 박상(訥齋 朴祥, 1474~1530)·육봉 박우(六峰 朴祐, 1476~1546) 형제를 모시게 된다. 마침 담양부사로 내려온 박상을 만나게 된 것인데, 연보에서 밝혔듯이 스스로 “평생에 향방을 조금 알게 된 것은 오로지 이끌어주심에 힘입은 것이다.(平生稍知向方 專賴導引之力)”<sup>45)</sup>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때 정만중(鄭萬鍾)과 함께 배웠는데, 시에 대한 적공은 이 무렵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송순의 생애에서 제2기를 열어 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무렵 능성 현감으로 부임한 송세림(宋世琳)과의 교유도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다. 박상이 기세한 중종 25년(1530)까지 제2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 성균관에 드나들고 벼슬길에 나간 뒤에 정치현실에서 만난 선배·동료들과의 교유를 제3기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실제 정치현실의 소용돌이에서 경륜을 펴기 위해 애쓰기도 하고 정적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송순의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정치현실과 대면하였다. 실제 실록 등의 기록을 통하여 당대의 정치 상황과 송순의 발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객관적이고 정치한 분석이 이루어진 뒤에야 벼슬에서 물러난 의미와 향촌생활이 지니는 의미를 변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4기는 정치 현실에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갈등이 노정되는 과정에 여러 차례 귀향하게 되면서 담양 주변의 인물들과의 교유를 늘려 가는

45) 『俛仰集』 권5, <年譜>, 『한국문집총간』 26, 273쪽.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정치현실에 몸담고 있는 과정에서의 교유와 벼슬살이에서 물러나 면양정이라는 문화공간에서 지내는 동안의 삶으로 다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선조 12년(1579) 면양정에서 마련한 송순의 회방연(回榜宴)에서 정철(鄭澈)을 비롯하여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송순을 남녕(藍寧)에 태우고 함께 메고 집까지 모신 일<sup>46)</sup>은 송흙의 기영정 잔치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시가사와 문학사에서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앞의 각 시기와의 연결 고리를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검토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로 한다.

주제어 : 송흙, 송순, 귀향, 향촌생활, 문화공간, 효성, 청렴

---

46) 『俛仰集』 권5, <年譜>, 『한국문집총간』 26, 282쪽.

## 참고문헌

『국역 태종실록』

『국역 연산군일기』

『국역 중종실록』

『국역 명종실록』

『국조 문과방목』

朴祥, 『訥齋集』, 『한국문집총간』 18

宋純, 『俛仰集』, 『한국문집총간』 26

宋麟壽, 『圭菴集』, 『한국문집총간』 24

宋欽, 『知止堂遺稿』(서울대 규장각)

梁彭孫, 『學圃集』, 『한국문집총간』 21

魚得江, 『灌圃集』(서울대 규장각)

尹拯, 『明齋集』, 『한국문집총간』 136

李選, 『芝湖集』, 『한국문집총간』 143

李賢輔, 『龔巖集』, 『한국문집총간』 17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속』(선명문화사, 1975), 135~195쪽.

김성기, 『면앙송순시문학연구』(국학자료원, 1998), 11~43면, 259~281쪽.

박은숙, 『16세기 호남 한시 연구』(월인, 2004), 9~60쪽.

이종건, 『면앙정 송순 연구』(개문사, 1982), 7~45쪽.

이종묵, 『해동강서시파연구』(태학사, 1995), 255~283쪽.

정익섭, 『개고 호남가단연구』(민문고, 1989), 7~205쪽.

최재남,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국학자료원, 1997), 9~27쪽., 38  
5~391쪽.

최재남,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보고사, 2003), 101~148쪽.

최재남, 『어득강의 삶과 시의 특성에 대한 일고』, 『한국한시연구』 11집  
(한국한시학회, 2003), 67~96쪽.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returning  
home of Songheum(宋欽) and the Literary  
foundation of Songsun(宋純)

Choi, Jae-Nam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crutinize the influence of the returning home of Songheum(宋欽, 1459~1547) and to explain the literary foundation of Songsun(宋純, 1493~1583) in Chosun dynasty.

Songheum, to be nicknamed Chichidang(知止堂), was an able administrator in 16th century. In his lives, he was cognized as to honor his parents and to be honest to the people. First, he was a local governor what is distinguished for virtue at Cheolla area. Second, he returned home frequently and honored his parents consistently. Many people were proud of his attitude for comfortable retirement. And third, after retirement he built a pavilion named Kwansu(觀水) around his home and rejoiced his country village pastoral lives. And Songinsu(宋麟壽), the governor of Cheolla, gave a feast for old age especially for Songheum at the new-built pavilion named Kiyong(耆英). This ceremonial cultural tradition has a very important function in the country village lives.

Songsun, to be nicknamed Myunang(俛仰), was a third joint nephew with Songheum and learned from him in young age. Being growth, he turned into verse his attitude on Songheum. In this respect, the literary foundation of Songsun was dependent on his third

joint unckle Songheum.

Key Words : influence, returning home, literary foundation, country village life, Songheum(宋欽), Songsun(宋純), to honor one's parents, to be honest.